덕진공원, 한국전통정원으로 거듭난다

전주시,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통해 연화교 · 연화정 재건축 등 기반시설 정비 · 관광명소화

전주시 대표 공원인 덕진공원이 전통과 생태, 문화를 담은 한국전통정원으로 재창조된다.

전주시는 오랜 시간 전주시민의 사랑를 받아온 덕진공원이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전통과 생태, 문화가 꽃피우는 한국전통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203억 원(도비 90억 원, 시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덕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 연화교와 연화정을 철거하고 전주의 정체성을 담아 전통석교 형태의 연화교와 전통정원을 갖춘 전통한옥 형태의 연화정을 재건축했다. 연화정의 경우 전통한옥 형태의 도서관으로 조성돼 2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덕진지 조망과 이용객 휴식을 위한 덕진정 △수변쉼터 조성 및 야간경관 조명과 전통담장길 △연꽃군락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덕진공원의 수질개선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조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덕진공원과 공원 하류인 조경천의 하천유량 확보와 수질개선, 생물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현재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시는 향후 수질조사 등 현황조사, 전북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덕진공원 수질개선에 앞서 시는 도시지역 내 녹색공간과 생태공간 확대를 통해 빗물의 침투, 저류, 재이용을 통해 빗물 유출을 감소시키는 '덕진공원 유역 LID 사업'을 지난해 완료했다. 총사업비 123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을 통해 덕진공원 유역(덕진 · 금암 · 인후동 일원 3.94㎢)에는 투수성 포장, 침투측구, 쇄석저류조, 식생체류지 등이 설치돼 갈수기 하천유량 유지와 초기우수의 토양여과를 통한 수질정화, 우수의 토양침투를 통한 지하수 함양, 홍수예방, 열섬현상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덕진공원 내 옛 수영장 부지는 다양한 놀이와 학습, 체험 휴식이 가능한 놀이공간의 기능을 갖춘 맘껏숲과 맘껏하우스, 생태 숲놀이터 도서관 등이 생겨나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놀 권리를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동친화공간인 '야호 맘껏 숲놀이터'로 탈바꿈됐다. 시는 이곳에 놀이활동가를 배치해 기본 · 계절별 ·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배치된 놀이활동가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놀이관찰, 안전관리와 시설물 점검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덕진공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영 · 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탈바꿈된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2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 연말까지 국비 등 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차장 및 이동 동선을 정비하고 시민갤러리를 관광약자 쉼터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덕진공원은 전주시민들의 추억과 일상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라며 "현재 이곳에서 전통과 생태, 문화는 물론이고 아동과 관광약자까지 배려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서간 협력을 바탕으로 덕진공원을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의 다양한 추억을 간직한 덕진공원에서는 전주단오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2022 전주단오' 행사는 오는 6월 3~4일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단오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단오 문화마당, 단오 풍류마당, 단오겨루기, 풍물시장, 부대행사 등 20여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

전주문화재야행 17~18일 경기전 · 전라감영 등서 개최

시원한 밤공기와 은은한 달빛을 벗 삼아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전라감영에서 다양한 전통공연을 즐기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경기전과 전라감영, 웨딩거리, 한옥마을 일원에서 '2022 전주문화재야행(이하 전주야행)'을 개최한다.

올해 전주야행은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라는 슬로건으로 8개 분야 총 31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전예약제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발맞춰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의 밤'을 선사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대표 프로그램인 '문화재 치유의 공간'은 경기전 부속채에서 진행되며, △국악기와 싱잉볼(경기전 수복청) △다도와 무용(경기전 뜨락) △하늘의 별빛을 감상하며 휴식(경기전 서쪽 돌담길) 등 5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전주를 기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예술 단체가 대거 출연하는 '경기전의 밤'의 경우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경기전 소나무 군락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는 국악 실내악 단체와 단성음악인 판소리에 화성을 입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판소리 합창단 등이 대거 출연해 경기전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전주야행만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경기전 좀비실록'도 오후 8시부터 전주사고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올해 전주야행은 기존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 외에도 인근 전주웨딩거리가지 축제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등 관공서와 백화점, 금은방 · 시계점 등이 모여 전북의 명동이라 불렸던 전주웨딩거리에서는 근대문화재와 미래유산의 역사이야기를 명품배우들의 연기로 재미나게 들을 수 있는 '빛나는 길' 역사탐방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야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경기전 북쪽 돌담길에서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연동화와 그림자극을 선보이는 '전주사람 전주이야기'가 펼쳐지고, 온라인 이벤트로 어릴 때 착용한 한복 사진을 업로드하는 '라떼 한복 콘테스트'와 가장 오래된 한복을 찾는 '한복 진품명품' 등도 진행된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전주야행은 휴식과 치유를 주제로 참여형 대면 프로그램들로 대거 구성했다"면서 "전주야행이 코로나19 이전의 활기찬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군경묘지 현판식 · 일제정비 준공식 개최

순국선열 희생 감사하는 마음 함양토록 현판 · 안내판 등 설치

전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 전주군경묘지에서 묘지 일제정비 준공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31일 전주군경묘지에서 묘지 일제정비 준공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주군경묘지는 1953년 6.25 전쟁 당시 국가를 수호하다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처음 조성된 이후 1966년 경찰묘지가 추가 조성됨에 따라 지난 1973년 명칭이 군경묘지로 변경됐으며, 현재 군인과 경찰 416명의 유해가 안장돼있다.

전주군경묘지는 조성 당시 '낙수정'이라는 누정이 있어 '낙수정 군경묘지'로 불렸으나, 시는 현재 '낙수정'이 사라지자 지금의 '전주군경묘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판과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또한 시는 순국선열을 예우하기 위해 노후화되고 크기가 제각각인 묘비를 국립묘지 묘비와 동일한 크기와 규모로 재정비했다. 새로 교체된 군경묘지의 비석 비문의 글자 형태를 국립묘지에 준해 통일하고, 석재는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로 알려진 익산 황등암을 사용했다.

이에 앞서 시는 국가유공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국가유공자 유형에 차등 없이 6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후화된 군경묘지 정문을 묘지 내 현충각과 기와담장과의 조화를 위해 전통한옥양식 정문으로 개보수했다.

시는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현재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송천동 전북독립운동추념탑 인근 3만 366㎡ 부지에 전북지역 보훈단체의 오랜 바람인 보훈누리공원공원도 조성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진료 개시

전주시보건소, 병원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원 예정

장애인 산모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북지역 최초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진료를 개시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주예수병원이 진료를 개시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과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환경을 개선한 사업이다. 현장실사를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주예수병원을 포함한 전국 8개 기관이 선정됐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외래진료실 △LDR실(Labor-Delivery-Recover, 진통, 분만, 회복을 모두 한 공간에서 가능) △휠체어 이용가능 수유실 △전동침대 △휠체어체중계 △이동식 진통리프트 등을 갖추고 있어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예수병원에는 시설 리모델링과 의료장비 구비, 장애친화 코디네이터(간호사, 사회복지사) 채용 등을 위해 국비 1억88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7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해마다 국비 7500만 원을 포함한 1억50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장애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향후 예수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체험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인해 장애인 산모가 안심하고 24시간 공백 없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8주년 기념식 개최

전주시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1일까지 기념행사 진행

128년 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총본부인 대도소가 설치됐던 전라감영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의 전주입성(5월 31일)과 전주화약(6월 11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달 31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8주년 기념식 및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128주년 기념식을 포함한 2022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은 6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종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 이날 기념식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축사, 폐정개혁안 낭독, 이광재 작가의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의 역사적 의미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기념공연인 '승리의 함성, 희망의 노래'(팝페라앙상블 '라 스트라다')가 펼쳐졌다.

이와 관련 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올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로 △동학농민혁명 전주지역 유적지탐방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기념전시회 △동학농민혁명 시민체험전 등을 진행한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의 경우 완산칠봉유적지와 전라감영, 풍남문, 경기전 등을 도보로 돌아보며 전주지역 농민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담은 자료 및 사진, 학생들의 회화작품을 만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린다.

기념관 내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영상물이 상영되고, 5일과 6일에는 이틀간 시민들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판화체험전도 진행된다.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자주, 평등, 개혁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대사건으로, 전주는 전주화약 등 동학농민혁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격전의 심장부였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보행자용 도로명판 280개 추가 설치

전주시가 도보로 걷는 시민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한다.

시는 6월 30일까지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이면도로와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280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에는 보행 진행방향과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기초(건물) 번호 등이 표기돼 있어 쉽게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시는 보행자의 도로명주소 길 찾기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을 매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보행자용 도로명판 1만457개 등 총 1만3305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했다.

백미영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장은 "보행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길찾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발달장애인 4명 정규직 채용

발달장애인 4명이 전주시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으로 채용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시장실에서 신규임용 발달장애인 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으며 이날 임용된 직원들의 부모도 함께 참석해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시는 공공부문 발달장애인 신규채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 직무분석을 의뢰, 동물원운영보조 및 행정사무보조 등 직무를 발굴해 발달장애인 채용을 준비해왔다.

이후 △신규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직무훈련(5주) 등의 절차를 거쳐 발달장애인 4명을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로 최종 선발했다.

신규 임용된 4명은 6월에 도서관과 동물원, 장애인복지과에 배치돼 근무를 하게 된다.

시는 발달장애인의 근무 적응을 돕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배치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맞춤직무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근무지에 직무 지도원을 배치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여름철 광장 분수대로 시원한 경관 선사

전주시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첫마중길 등 주요 광장의 분수대를 가동한다.

시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첫마중길 워터미러와 전주역 광장 분수대, 오거리광장 분수대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시원한 경관을 선사하기 위한 조치로, 분수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간 가동 후 20분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분수대의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매주 1회 소독 및 청소를 하고, 날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